

납세자 권리구제 역시 특특히 이뤄졌습니다. 7월과 9월을 합쳐 분할납부 신청은 3,864건(969억 원)으로 전년 대비 14% 증가했고, 당장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납부유예는 45건(124억 원)으로 무려 137%나 폭증했습니다. 또한,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감면도 464건(47억 원)으로 43% 늘어났습니다.

에필로그: 1위보다 값진 신뢰

이로써 강남구는 2025년 7월 징수율 96.8%를 기록하며, 10년 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단독 1위라는 기적을 쏘아 올렸고, 9월 징수액 까지 포함해서는 총 1조 2,562억 원을 징수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에게 1위라는 순위보다 더 값진 것은 구민들이 보여준 ‘신뢰’입니다. 세금 징수는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, 납세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불편을 덜어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

“마음을 읽는 세정, 1위로 응답하다.” 이 슬로건은 이제 강남구 세무부서의 자부심이자,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었습니다. 우리는 내년에도, 그다음 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마음을 읽는 스마트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.